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 두 번째 기적 II

(요 4:46-54)

이종윤 원로목사

### 2. 두 기적이 보여주는 진리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어 관계를 해 주십니다.

(1) 예수님은 기쁜 자에게도 슬픈 자에게도 주가 되신다

우리가 일이 잘 되어서 기쁨을 얻으면 우리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혹은 재수가 좋아서 그리된 줄 알지만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주님이 주셨듯이 모든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살려 주신 분도 주님이 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행복한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그 행복은 더 커질 것이고 기쁜 자리에 임하시면 그 기쁨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가슴 치는 자리에 오시면 거기에 참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2) 믿음을 높은 차원으로 성장시킨다

인간은 고향을 막론하고 운명적으로 닥쳐오는 슬픔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그 안타까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귀인은 적시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위가 수반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로 주님께 달려가 함께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시험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인의 믿음을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고 냉정하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48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귀인을 꾸중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과 성실성은 예수님의 꾸중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아니면 아들이 살 길이 없는 줄을 확실히 알고 항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한 신앙, 차원 높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사람들은 보아야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봐야 믿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합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으라, 그리하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낮기를 원하느냐? 돌아가거라!" 말씀을 믿고 돌아가면 나온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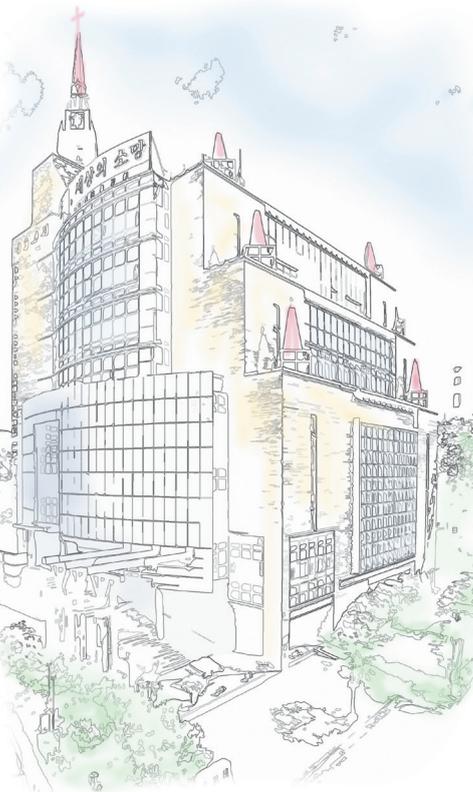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잔뜩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 대로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도록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소원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믿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욕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찾고 구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보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고난의 길이 오는 것은 하나님만 더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응답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생활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는 특별히 효능이 있습니다. 아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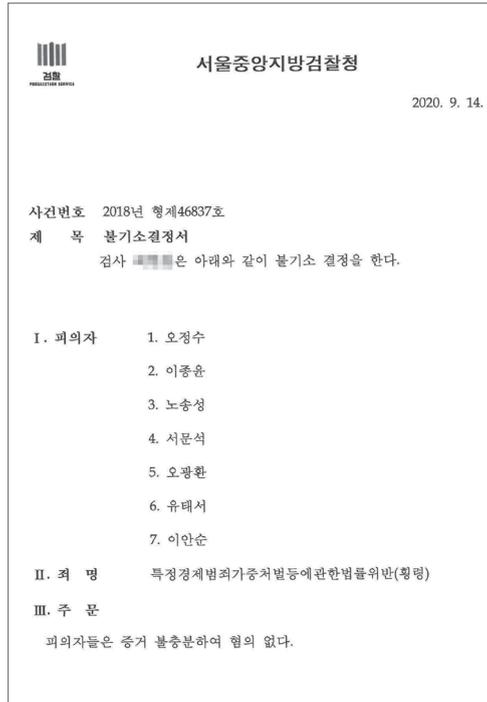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초청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한 모든 기도를 이루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여 승리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오정수 장로 등 7명 전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

- 불법점거 손해배상 건은 변론 종결하고  
오는 10월 14일 판결 선고 -

“  
오정수 장로가  
수십억 원을  
서울교회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  
대여 이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 수천만 원씩,  
심지어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건축헌금으로 드린 사실도 설시  
...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진술조차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종전 의정부지검에서  
이미 있었던 ‘혐의 없음’ 처분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박노철 목사 측은 2018년 6월, 오정수 장로가 차명계좌 수백 개를 운영하며 원로목사는 물론 역대 사무국장, 재정담당 직원 등과 공모해 백십억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원하는 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당회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불법단체를 앞세워 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기까지 하였으나 수사경찰서는 2019년 2월 8일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계속 이루어진 검찰인사로 담당검사가 여러 번 교체되는 사정 때문에 송치 후 1년 7개월이라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지난 2020년 9월 14일(월) 피고발인 전원에 대하여 경찰의견대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사는 무혐의 결정문에서 오정수 장로가 수십억 원을 서울교회에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여 이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 수천만 원씩, 심지어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건축헌금으로 드린 사실도 설시하고 있다.

또 고발인들은 종전 고소내용에 기간과

일부 액수만 추가시켜 고발하였는데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진술조차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종전 의정부지검에서 이미 있었던 ‘혐의 없음’ 처분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들의 고발이 얼마나 분쟁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나 지지세력을 위한 동력 유지용의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체감할 수 있다.

그동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피고발인들께 온 성도들의 위로 함께 전한다.

한편 지난 9월 1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노철 목사 외 99명을 상대로 한 용역점거 손해배상 소송 최종 변론이 있었고 오는 10월 1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불법용역에 의지하여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부끄러운 행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는 단호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위해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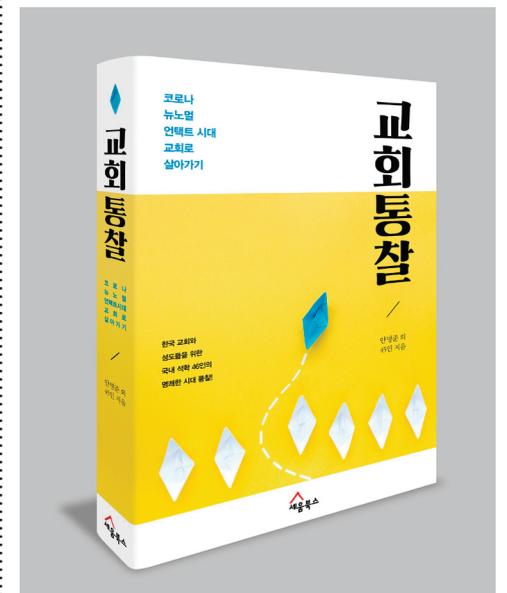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윤중현 안재선·문수자 윤요섭·안재희 이영재  
장창수·박혜정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신간안내- 교회로 살아가기 『교회 통찰』



오늘날 코로나 현상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피해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문명사적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 문제는 교회의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자연과 국가, 사회에 대한 변화된 환경에서 한국교회의 미래 전망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현상 앞에서 교회의 박사 46인이 교회 통찰이라는 제하의 신간을 발간하여 한국교회에 길잡이가 되기로 자청하고 나섰다.

이 책의 추천사는 이종윤 목사, 민경배 박사 등 한국교회의 각 교단과 학회의 지도자 9분이 썼고, 비정상, 비대면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성경적 고찰, 신학과 교회, 교회사적 고찰과 한국교회 희망찾기, 목회, 삶 등 총 6장으로 464면으로 편집된 교회의 보감(寶鑑)이 되는 글 모음집은 세움북스가 펴냈고 권당 23,000원이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과 함께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며 기도하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 2020 성경암송대회 일정 변경

**예선 : 11월 1일 (주일) 온라인으로 진행**

**본선 : 11월 7일 (토) 교회에서 실시**

1년 동안 준비하며 진행하던 2020 성경암송 대회 일정이 변경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안정화 단계로의 진입이 더딤에 따라 정부와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마음으로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고 예선 방식도 온라인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예선은 11월 1일(주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선은 11월 7일 (토) 교회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2020 성경암송대회와 빠른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성경암송대회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준 유·초등부 교사들

2020 성경암송대회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연기되고 예선이 온라인 형식으로 바뀌에 따라 유·초등부 교사들이 성경암송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암송성구 범위인 시편 119편 176절을 유·초등부 교역자 및 교사 총 22명이 8절씩 22단락으로 나누어 암송하는 모습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김혜언 집사(초등부 부장)는 "시편 119편은 시편 및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으로 특히 시편 119편은 답관체 시편의 백미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납니다. 각각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각 8절에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는 1-8절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는 9-16절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은 모두 22자입니다. 그래서 22자가 8절씩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성경암송을 8절씩 나누어 유·초등부 교역자, 교사 22명이 암송을 진행하여 동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형식의 성경암송대회가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보여 준 유·초등부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교회 에티켓



반드시 체온측정 후 입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11월 7일(토)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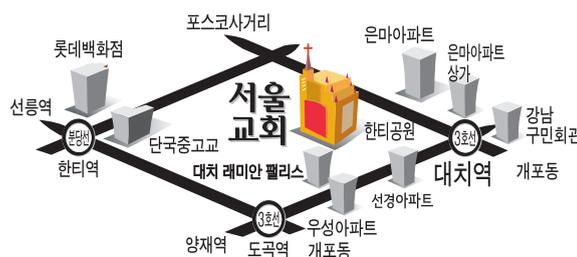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9월21일	월	속 10-14		시 69-77	
9월22일	화	말 1-4, 마 1-3		시 78-85	
9월23일	수	마 4-5		시 86-98	
9월24일	목	마 6-8		시 99-105	
9월25일	금	마 9-11		시 106-115	
9월26일	토	마 12-13		시 116-119	
9월27일	주일	마 14-15		시 120-136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